



‘청소년 성매매의 진실’로 광주교육감상을 수상한 광주진흥고 팀이 모의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제공>

세광학교 모의재판 최우수상

광주지법, 고교 경연대회 ‘절도’로 수상

제2회 고교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세광학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광주지법(법원장 김광태)은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후원으로 제2회 고교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16개 학교 18개 팀이 참가했다. 전날 펼쳐진 결선에는 광주 서강고·세광학교(사각장에 특수학교)·진흥고·담양 장평고·영광 해통고가 진출했다. 심사 결과, 세광학교가 ‘절도’로 범원장상을, 진흥고가 ‘청소년 성매매의 진실’로 광주교육감상을, 해통고가 ‘화장실 도촬사건’으로 전남교육감상을, 서강고가 ‘웨딩이브의 비극적 결말’로 우수상을, 장평고가 ‘동성 강간미수’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또 세광학교 전승철, 진흥고 장희운, 해통고 이동선 교사가 지도교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청소년 성매매·화장실 도촬·교내 동성애 등의 다양한 소재가 다뤄졌다. 아울러 학생들의 재기발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시나리오 곳곳에 반영됐다는 법원의 평이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학생들이 법률지식을 익히고 재판 제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는 중요한 기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복지재단-광주시립미술관 업무 협약



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왼쪽)과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6일 복지재단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술 문화 대중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복지재단 제공>

광주대, 영화 ‘임을 위한’ 촬영 분장지원



광주대(총장 김혁중)는 최근 뷰티미용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촬영지에서 분장지원 활동을 펼쳤다. <광주대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하축

▲김형호(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강민정씨 장남 영재(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군 강상운(KT 서광주지사)·최금선씨 장녀 진홍양=10일(토) 낮 12시 서울 강남구 아미랑스웨딩(서울 상록회관) 4층 그랜드볼룸.

종친회

▲경주배씨 광주종친회(회장 배경석) 정기월례회=8일(목)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대인동 상성한 민어·전여회관, 문의 010-8623-4949.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우) 이화희 월례회=13일(화) 오후 6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

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음주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치매, 인터넷 등 무료 상담. 열린마음상담센터(오치·두암·무등·우산·각화)에서 매주 월·금 오후 2시~6시까지. 문의 062-526-3370.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주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각종 체험활동,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사랑애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모집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원=담양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 출신 환영. 010-3608-1060. ▲사단법인 효사랑넷 봉사단=뜸 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원=한문·예

謹

삼가 故人の 冥福을 빕니다

弔

301호 故趙孝熙 님(男/79세) 子/子婦 : 조영우 女/婿 : 조성덕/김정진, 삼윤/최충렬, 영미/박근영 未亡人 : 류길재 ●발 인 : 9월 7일 ●장 지 : 화순읍 선영 ●연락처 : 227-4382	401호 故張善享 님(男/71세) 子/子婦 : 박대희/홍준애 女/婿 : 박미희/유희락, 순희/김국 未亡人 : 박승두 ●발 인 : 9월 9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3
402호 故陳孝熙 님(男/62세) 子/子婦 : 현은기/최민희, 경기/박은정 未亡人 : 남은희 ●발 인 : 9월 7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3	102호 故張현심 님(女/85세) 子/子婦 : 이기철/장영희, 기운/제기심 女/婿 : 이기순/김철휘 ●발 인 : 9월 7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5

孝 금호장례식장

마음까지 편안한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광주청 ‘해결사’ 경찰인권영화제 최우수상 이유 있었네

<인권영화>

“학교전담경찰관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 경찰아빠는 어찌해야 할까?”

광주경찰과 시민이 함께 만든 영화 ‘해결사’가 제5회 경찰인권영화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찰인권영화제는 국가기관 최초의 영화제로 시민과 경찰이 영화를 매개로 인권 감수성을 공유·향상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 5회째를 맞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해결사’는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인 주인공이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아들의 조치를 놓고 아버지와 경찰이라는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담은 인권영화다.

장면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실, 학폭위 부위원장인 학교전담경찰관 김경순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모든 상을 들은 뒤 가해자를 불렀는데, 그 가해자가 다름 아닌 아들 준수였던 것이다.

준수가 친구인 재성이를 졸권 괴롭혔다는 내용이었다. 게임기를 뺏고 돈을 갈취하고, 얼굴·영덩이를 때리는 등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것이다.

학폭위는 ‘정말이냐?’고 되물었다. 가해자인 준수는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 이미지였고,

인권 관심있는 시민들과 함께 제작

학폭 아들 둔 학교전담경찰관 고뇌

경찰청, 유튜브 등 인터넷 게재

반면 피해자인 재성은 공부도 못하고 선생들에게 쫓힌 학생이었던 탓이었다. 이 때문에 가해자는 유리해지고, 되려 피해자가 불리해졌다. 가만히 눈 감으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상황이었다.

아버지 경순은 갈등했다. 자신만 조용히 눈 감으면 끝날 것이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학교폭력을 막아야 할 학교전담경찰관이었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시나리오 공모·제작·연기·촬영·편집 등 모든 부분을 인권보호에 관심 있는 경찰관 및 시민이 함께 만들었다. 서부경찰서 방범순찰대 고낙근 이경이 연출·촬영을, 이현일 일경이 제작을 담당했다. 광주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심우선 경장은 제작총괄지원을 맡는 등 광주경찰 6명이 영화 제작에 구슬땀을



지난달 31일 서울 남영동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열린 ‘제5회 경찰인권영화제’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광주경찰청의 ‘해결사’ 제작·출연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제공>

흘렸다. 주인공과 아들 역은 서울 연기자들 초빙했지만, 학교폭력 피해자인 박재성 역을 맡은 나영우 군 등 시민·학생·경찰 20명이 역할을 나눴다.

경찰청은 영화 ‘해결사’를 경찰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국내·외 단편 영화제 출품, 경

찰청 유튜브 등 인터넷에 게재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심우선 경장은 “인권에 관심있는 경찰과 시민이 모여 함께 영화를 제작해 의미가 깊다”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광주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신세계, 저소득 아동 자립 후원금 1000만원 전달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임훈)는 6일 광주시 및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은영)와 저소득 계층 아동의 자립지원을 돕는 ‘희망씨앗 프로젝트’ 후원금 전달식을 했다. 지난날 광주신세계는 올해 두 번째로 ‘행복 나눔 바자회’를 열고 지역 내 저소득 계층 아동의 홀로서기 자립지원을 위한 임직원 자체 바자 행사를 했었다. 당시 임직원들의 기부품과 간식 판매 등 행복 나눔 바자회 수익금 500만원을 지역 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희귀 난치아동들을 돕기 위해 내렸다. 또 임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바자회 수익금 외에도 회사의 ‘매칭그랜

트’(Matching Grant·직원의 기부금만큼 회사가 동일한 금액 이상을 기부하는 제도)를 통해 조성된 500만원을 더해 총 1000만원을 전달했다. 희망씨앗 프로젝트는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의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임훈 대표이사는 “어려운 환경의 아동들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자립 지원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캠페인 참여가 지역 내 나눔과 희망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선 호남대 신방과 교수 광주청년정책위원 선임

한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광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됐다. 한 교수는 임기 2년 동안 광주시의 청년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게 된다. 광주시 청년정책위원회는 광주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 전반을 계획하고 평가·조정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광주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윤장현 광주시장을 포함한 총 25인으로 구성돼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이준열 광주시축구협회장 결식학생돕기 1000만원 후원

이준열 광주시축구협회장은 최근 (재)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을 찾아 지역 고등학교 결식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취임식 대신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 회장의 부인인 서정의 (재)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이사도 이날 함께 참석했다. 이회장은 “평소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부인을 통해 재단 설립 취지를 알고 있었다”며 “최근 재단 운영의 어려움을 접한 뒤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후원금은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에 지정기탁돼 결식학생들을 돕기 위한 급식비로 쓰여질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문정환 광주시 주무관 ‘지적세미나’ 최우수상

문정환(37·시설 7급) 광주시 토지정보과 주무관이 최근 국토교통부 주최로 서울 다케이 호텔에서 열린 ‘제39회 지적세미나’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문 주무관은 ‘지적공부 수치화와 지적측량 자료 축적 및 활용방안’이란 연구과제로 참가해 도해지적에서 수치로 전환한 지적전산화와 수치측량 데이터의 활용·현주소를 알아보고, 기존 지적공부의 지역특성계 좌표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적세미나는 지적, 공간정보의 제도 개선과 미래전략을 수립해 정부 3.0을 실현하기 위



한 학술세미나로, 올해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기관이 주관하는 ‘2016 스마트 국토엑스포’의 학술부문으로 열렸다. 전국 17개 시·도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서 제출한 연구논문 총 28편 중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우수과제 8편의 발표와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최우수상작이 선정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부음

▲한단석(전 전북대 인문대 학장)씨 별세 송양(사업)·형준(농협생명 IFRS 부장)·수일(NH-Amundi자산운용 상무)·진하(사업)씨 부친상 오이양(스카이투자자문 대표)씨 망부상=발인 7일(수)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02-3410-3511. ▲김우태씨 별세 영환·관영씨 부친상 이공주씨 시부상=발인 7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박길석씨 별세 신일·종신씨 부친상=발인 7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최범영씨 별세 재천(전 국회의원)씨 부친상=발인 8일(목) 해남종합병원 장례식장 061-533-4444. ▲김순례씨 별세 이흥래(전주 MBC 국장)·덕래(사업)씨 모친상 이용익(매일경제신문 기자)·서연(서울 대원국제중 교사)씨 조모상=발인 8일(목) 전주병원 장례식장 특실 063-227-0444.